

박한영의 독립운동가 서훈 문제

김순석*

• 목 차 •

- I. 머리말
- II. 박한영의 근대 불교계 개혁운동과 독립운동
 1. 근대 불교계 개혁운동
 2. 독립운동 행적
- III. 독립유공자 서훈 문제
- IV. 맺음말

*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위원.

© 『大覺思想』 제39집 (2023년 6월), pp.9-36.

한글요약

박한영은 한말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세월을 살다 간 불교계의 고승이다. 그는 민족사가 수난을 당하던 시기에 항일의식이 투철하여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투신하였으며, 불교계 현실을 개혁하고자 하였던 개혁론자였으며 평생을 후학 지도에 헌신한 교육자였다.

박한영의 행적은 크게 세 가지 면으로 요약할 수 있는 데 첫째 불교계 개혁을 통한 유신운동, 둘째 교육을 통한 구국운동, 셋째 한성임시정부 참여와 대동단 활동을 통한 항일운동 등이다. 그의 개혁운동은 한국 불교계의 주체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이었는데 이러한 노력은 임제종 설립운동과 사찰령철폐운동, 대중교화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력은 식민지 치하에서 항일운동과 맞닿아 있었다. 박한영의 불교계 유신운동은 한말부터 일제강점기에 반봉건·반외세를 지향하면서 일제의 종교 침략으로부터 한국 불교계의 주체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었다. 박한영의 독립운동은 한성임시정부, 대동단 활동, 「韓國人民致太平洋會議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모두 주체적이고 독자적인 근대 민족국가건설을 지향한 힘든 노력이었다.

박한영의 지도와 영향을 받은 후학들은 그의 독립운동 행적을 기리고자 2010년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국가보훈처에서는 박한영의 항일운동 행적을 심사한 결과 보류 판정을 내렸다. 그 까닭은 중일전쟁 이후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이 전개될 무렵 박한영이 중앙양불교전문학교 교장으로서 근로보국대장을 지냈다는 것이 결격 사유가 되었다고 한다. 국가보훈처의 이러한 결정은 나무를 보되 숲을 보지 못한 단편적인 시각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는 일제의 침략이 시작되었던 초기부터 해방이 되는 그 순간까지 수많은 항일운동가를 키워냈으며 그 자신이 직접 그 선봉에 섰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명하고 박한영 행적의 불교계 개혁운동과 교육사업 그리고 독립운동을 밝히고 그 의의를 찾아봄으로써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서 이 논문이 박한영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한 계기가 되어 근현대 불교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주제어

박한영, 불교계 개혁운동, 사찰령철폐운동, 임제종설립운동, 한성임시정부, 대동단, 중앙불교전문학교

I. 머리말

박한영(朴漢永 : 1870~1948)은 한말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격동기를 살다 간 敎禪을 겸비한 불교계의 고승이다. 그는 전북 완주군 草浦面 鳥沙里 창뚝 마을에서 1870년 9월 14일(음력 : 8월 18일) 아버지 朴聖墉과 어머니 진양 강씨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누이가 하나 있었다고 한다. 그의 호적 이름은 漢永이고, 법명은 鼎鎬, 법호는 映湖, 別號는 石顛이다.¹⁾ 그의 집안은 완주 지역에 세거하던 몰락한 殘班이었던 것 같다. 그는 7살이 되던 해 향리의 서당에서 한학을 수학하였으며, 영특하였던 까닭에 접장 노릇을 하였다고 한다. 그는 나이 19살 때인 1888년 완주 위봉사 산내 암자인 태조암으로 출가하여 錦山大營 선사를 은사로 득도하였고, 법명은 정호라고 하였다.²⁾

박한영은 일제강점기와 해방공간에서 교정을 역임함으로써 한국불교계의 상징적인 존재이다. 그는 항일의식이 투철하여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투신하였으며, 불교계의 현실을 개혁하고자 노력하였던 개혁론자였으며 평생을 후학을 지도하는 일에 헌신한 교육자였다.³⁾ 그의 문도들은 박한영의 이러한 행적을 기리고자 국가보훈처에 그를 독립유공자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국가보훈처에서는 박한영의 항일운동 행적을 심사한 결과 보류 판정을 내렸다고 한다. 그 까닭은 중일전쟁 이후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이 전개될 무렵 박한영이 중앙불교전문학교(이하 ‘중앙불전’으로 약칭함) 교장으로서 근로보국대장을 지냈다는 것이 걸림돌이 되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1938년 총독부 기관지였던 『每日申報』

1) 종길·임혜봉, 『영호 정호대중사 일생록 석전 박한영』, 신아출판사, 2016, pp.46-65.

2) 위와 같음.

3) 노권용, 「박한영의 불교사상과 유신운동」, 『한국근대종교사상사』, 송산박길진박사고회기념사업회 편, 원광대학교출판국, 1984, p.4.
송선개, 「石顛 朴漢永의 佛敎 敎育改革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25.

가 제호를 『每日新報』로 바꾸었을 때 訟詩를 게재하였다는 것을 비롯하여 몇 가지가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 이 사실은 박한영의 문도들뿐만 아니라 불교계로서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여 박한영의 독립운동을 조명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박한영의 서훈이 보류되었다는 사실은 크게 두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남겼다. 그 하나는 국가보훈처의 심사기준에 관한 것이다. 아마도 그 기준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친일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당연직으로 식민통치 조직에서 일정한 직위 이상을 지냈을 경우에는 서훈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두 번째 문제는 박한영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문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박한영에 대한 연구가 왕성하게 전개되어 국가보훈처의 심사 원칙에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덕진은 「일제시대 불교계 인물들에 대한 연구성과와 동향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 불교사상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라는 논문⁴⁾을 발표하였다. 그는 이 논문에서 박한영에 대한 학술논문을 21편으로 집계하였으며, 전체 연구성과에 대한 점유율을 8.4%로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박한영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⁵⁾

기존의 박한영에 대한 연구는 불교사상·계율·교육활동·불교계 개혁운동·독립운동 등 크게 5가지 영역에서 진행되어왔다.⁶⁾ 먼저 불교사

4) 이덕진, 「일제강점기 불교계 인물들에 대한 연구 성과와 동향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 불교사상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선문화연구』 창간호, 2006, pp.85-86.

5) 위와 같음.

6) 지금까지 박한영에 관한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고영섭, 「映湖堂 林漢永과 尙賢居士 李能和의 학문적 태도와 연구방법」, 『한국불교학』 제78집, 한국불교학회, 2016.

김광식, 「만해와 석전 그 접점과 갈림길 그리고 절묘한 이중주」, 『유심』 11, 만해사상실천선양회, 2002.

_____, 「석전과 한암의 문제의식」, 『한국불교학』 제70집, 한국불교학회,

상에 관한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박한영의 기본적인 불교사상은 화엄적인 세계관과 兼全의 禪 사상이었다고 한다. 박한영의 화엄적 세계관은 진리를 보되 현상에 내재해서 중생을 구제하는 살아 움직이는 역동

-
- 2014.
- 김상일, 「석전 박한영의 저술 성향과 근대불교학적 의의」, 『불교학보』 제46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07.
- _____, 「근대 지성과 불교잡지 -석전 박한영과 만해 한용운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회』 제52집, 한국어문학회연구학회, 2009.
- _____, 「石顛 朴漢永의 불교적 문학관」, 『불교학보』 제56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0.
- 김상현, 「1910년대 한국불교계의 유신론」, 『불교평론』 4, 2000.
- 김창숙, 「石顛 朴漢永의 『戒學約詮』과 역사적 성격」, 『한국사연구』 107, 1999.
- 노권용, 「박한영의 불교사상과 유신운동」, 『한국근대종교사상사』, 원광대학교, 1984.
- 송선개, 「石顛 朴漢永의 佛敎 敎育改革에 관한 研究」, 東國大學敎育大學院, 석사학위논문, 1999.
- 신규탁, 「석전 박한영 강백의 교학 전통」, 『한국불교학』 제70집, 한국불교학회, 2014.
- 신현숙, 「石顛 朴漢永의 佛敎維新運動에 관한 一考察」,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 심삼진, 「石顛 朴漢永의 詩文學」, 『국어국문학논문요지집』, 1987.
- 오경후, 「石顛映湖 大宗師의 항일운동」, 『石顛映湖 大宗師의 生涯와 思想』, 제2차 백파사상연구소 학술세미나 자료집, 2009.
- _____, 「石顛 朴漢永의 佛敎史觀과 그 價値」, 『한국불교학』 제88집, 한국불교학회, 2018.
- 이덕진, 「일제시대 불교계 인물들에 대한 연구 성과와 동향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 불교사상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선문화연구』 창간호, 2006. 12.
- 종걸·임혜봉 공저, 앞의 책.
- 임혜봉, 『문사철의 석학 근대 지성의 멘토 석전 박한영』, 민족사, 2020.
- 김택근, 『천재들의 스승. 석전 박한영』,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
- 한종만, 「박한영의 오행합일」, 『불교와 유교의 현실관』, 원광대학교, 1981.
- _____, 「박한영의 유신사상」, 『현대 한국의 불교사상』, 한길사, 1988.
- 효 단, 「근현대 불교인물탐구, ① 박한영」, 『불교평론』 44, 2010. 9.
- _____, 「石顛映湖 大宗師의 戒律思想」, 『石顛映湖 大宗師의 生涯와 思想』, 제2차 백파사상연구소 학술세미나 자료집, 2009. 9.

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으며 세계와 중생을 보다 원융적인 화엄을 실천하는 도량으로 보았다고 한다.⁷⁾

계율에 관한 연구는 박한영은 대처식육 문제에 대하여 한용운이 혁신적인 계율관을 취하였던 것과는 달리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입장을 고수하였다. 박한영의 계율관은 일본불교에 대한 정체성 확립을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⁸⁾ 나아가서 이러한 박한영의 모습을 개량적인 노선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⁹⁾ 교육개혁에 관한 선행연구는 박한영의 교육개혁운동은 한국불교의 주체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이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노력은 임제종 설립운동과 대중교화의 형태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항일운동의 일환이었다는 것이다.¹⁰⁾

박한영의 불교계 유신운동은 한말부터 일제강점기에 반봉건·반외세를 지향하면서 일제의 종교 침략으로부터 한국불교의 주체성 회복을 위한 지난한 몸짓이었다고 본다.¹¹⁾ 박한영의 불교계 개혁과 불교사 서술 방법에 있어 그의 노력을 정신문화의 사대주의를 비판하고 조선불교사에 있어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부분은 주체성을 갖게 하는 것으로 보고 민족사학 방법론의 체계를 세운 것으로 이해한 연구도 있다.¹²⁾ 박한영의 불교사 관련 자료수집과 저술을 한국불교사의 복원을 목적으로 하였고, 그의 이러한 노력은 일제강점기 침체된 근대불교를 개혁하고 부흥하는 기초가 되었다고 한다.¹³⁾ 나아가 박한영은 조선후기부터

7) 노권용, 앞의 논문, 「박한영의 불교사상과 유신운동」.

한종만, 앞의 논문, 「박한영의 오행합일」.

8) 효 탄, 앞의 논문, 「근현대 불교인물탐구, ① 박한영」.

——, 「石顛映湖 大宗師의 戒律思想」, 『石顛映湖 大宗師의生涯와 思想』, 제2차 백파사상연구소 학술세미나 자료집, 2009.

9) 김광식, 앞의 논문, 「석전과 한암의 문제의식」.

10) 송선개, 앞의 논문.

11) 김상현, 앞의 논문. 신현숙, 앞의 논문.

12) 고영섭, 앞의 논문.

13) 오경후, 앞의 논문.

이어져 온 교학 전통을 계승하여 각종 저술과 강의를 통해 선교일치를 지향하였다는 것을 조명한 연구가 있다.¹⁴⁾

이러한 박한영의 생애와 행적에 대한 연구는 단행본 출간으로 이어졌다. 친일불교 연구가인 임혜봉은 박한영의 문도인 종걸과 함께 『영호 정호대종사 일생록 석전 박한영』이라는 단행본을 발간하였다. 이 책은 제목처럼 박한영의 일대기를 편년체 형식으로 소개한 저술로 석전의 생애와 관련된 다양한 화보를 많이 수록하여 그 가치를 더하고 있다.¹⁵⁾ 특히 석전의 불교개혁론에 관한 많은 저술들과 임제종 설립운동, 한성 임시정부, 대동단 활동, 한국인민치태평양회의서(韓國人民致太平洋會議書) 등 독립운동에 관한 행적을 소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석전의 다양한 기행문과 금강산 여행기록 등을 수록하고 있다. 임혜봉은 이 책이 출간되고 난 후 5년 뒤에 『문사철의 석학, 근대 지성의 멘토 석전 박한영』이라는 축약본을 발간하였다.¹⁶⁾ 2022년 문필가인 김택근은 『천재들의 스승, 석전 박한영』이라는 평전을 출간하였다.¹⁷⁾

박한영의 독립운동에 관한 연구는 박한영의 사찰령철폐운동과 한성 임시정부 참여, 민족대동단에서의 활동 등은 불교개혁운동이나 호법운동을 넘어서 민족정신수호운동의 일환으로 평가하였다.¹⁸⁾ 박한영의 독립운동 성과에 대한 연구는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사실들에 대하여 개별적인 연구가 심도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학적인 측면에서도 석전이 남긴 많은 시와 기행문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평생토록 헌신하였던 교육사업에 대한 성과도 정리되어야 할 것이고, 그가 못다 한 부

14) 신규탁, 앞의 논문.

15) 종걸·혜봉 공저, 『영호 정호대종사 일생록 석전 박한영』.

16) 임혜봉, 앞의 책, 『문사철의 석학 근대 지성의 멘토 석전 박한영』.

17) 김택근, 앞의 책.

18) 오경후, 앞의 논문, 「石顛映湖 大宗師의 항일운동」.

분에 대한 과제와 한계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축적되어야 비로소 석전에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이고, 또한 현재 불교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는데 디딤돌이 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선행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박한영의 독립운동을 조명할 것이다. 끝으로 박한영이 왜 독립유공자로 서훈 되어야 하는가를 서술할 것이다. 하지만 필자 한 사람과 이 한 편의 논문으로 심사원칙을 넘어서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한 편의 논문 속에 박한영의 항일행적을 모두 담는 것도 무리라고 생각된다. 이 글이 박한영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박한영의 서훈 문제는 서두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충분한 연구 성과의 축적해 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 되어질 것이라고 본다.

II. 박한영의 근대 불교계 개혁운동과 독립운동

1. 근대 불교계 개혁운동

박한영은 당시 현실의 불교계가 몹시 낙후되어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불교계를 개혁하는 데 있어 한용운과는 또 다른 면모를 보였다. 박한영과 한용운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 연구자는 이렇게 말한다. “한용운과 박한영은 일제강점기 불교를 대표하는 승려였으며, 당시 한국불교의 과제를 정면으로 해결하려는 최일선의 대열에 서 있었다. 이에 그들은 그 중심 무대, 과제를 결코 버리지 않고 자신의 해결 방안을 갖고 그 지향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것은 민족의 독립, 불교개혁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방면에서 약간의 차별성을 나타냈다. 한용운은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해 온몸을 던졌다면, 박한영은 제2선에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한용운이 최일선에 서 있었다면

박한영은 제2선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¹⁹⁾”고 평가하였다.

한용운이 급진적인 개혁론자였다면 박한영은 온건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개혁을 추구하였다. 이들은 일본불교의 침략에 맞서 전근대적인 불교계를 근대적으로 개혁하려 하였다는 점에서는 일치점을 가진다. 이러한 일치점은 1910년 한국 최초 근대 종단이었던 원종의 종정인 이회광이 원종을 일본 조동종과 연합을 획책하였을 때 임제종을 설립하여 한국불교의 독자성을 수호하려고 하였던 점에서 잘 드러난다.²⁰⁾

박한영과 한용운의 차이점은 계율 문제에 있어서는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한용운은 그의 역저인 『朝鮮佛敎維新論』에서 승려도 결혼을 해야한다는 대처론을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서 박한영은 승려는 독신 비구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한용운이 승려도 결혼을 해야한다고 주장한 가장 큰 이유는 포교에 있었다. 비록 결혼이 계율에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만약 포교를 하는데 있어 그 시대적 상황과 승려의 근기에 적합하다면 방편으로 결혼을 해야한다고 하였다.²¹⁾ 그리고 그는 그의 주장대로 결혼을 하였다.

이러한 한용운의 견해에 대하여 박한영은 1926년에 『戒學約詮』을 발표하였다. 이 책에서 그는 불법은 계율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하였다. 불법이 내용이라면 계율은 그릇이기 때문에 반드시 불법은 계율이라는 그릇에 담겨야만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²²⁾ 박한영은 그의 주장대로 일생을 비구로 지냈다. 이것이 두 사람의 큰 차이점이다. 한용운은 계율을 혁신적으로 해석하여 결혼을 하였고, 박한영은 전통을 고수하면서 비구승으로 지냈다.

19) 김광식, 앞의 논문, 「만해와 석전 그 접점과 갈림길 그리고 절묘한 이중주」.

20) 김광식, 「1910년대 불교계의 曹洞宗 盟約과 臨濟宗 運動」, 『韓國近代佛敎史 研究』, 민족사, 1996.

21) 김창숙, 앞의 논문, p.127.

22) 김창숙, 앞의 논문, p.120.

박한영은 한용운보다 9살이나 많았고 또 노선의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나이를 넘어서 서로를 신뢰하였다. 한용운이 남긴 한시 가운데 박한영을 대상으로 한 시가 10여 편이나 된다고 한다.²³⁾ 박한영은 1913년에 발간된 한용운의 『조선불교유신론』의 겉표지에 “한용운군저(韓龍雲君著) 조선불교유신론 석전산인 籤”이라고 책의 제목을 써 주었다. 이것은 박한영이 비록 한용운과 노선의 차이는 있지만, 그의 저서 출간을 축하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박한영이 社長兼務로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발간을 주도하였던 『해동불교』에 다음과 같은 『조선불교유신론』을 선전하는 문구가 보인다. ‘큰 칭찬이 없으면 참 영웅이 아니요, 큰 비난이 없으면 또한 참 영웅이 아니다. 이 책이 출간된 후에 한 편으로는 찬사를 얻었고, 한 편으로는 무한한 타격을 받았으니 시세를 만드는 걸작이고 잔설(殘雪)을 보내는 봄의 소리라.’²⁴⁾라고 칭찬하였다.

한용운에 비해 온건한 노선을 택하였던 박한영은 1912년 30본산주지회의원장 이회광이 그에게 고등불교강숙을 설립하고 강사로 위촉하였을 때 이를 수락하였다. 아마도 박한영은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는데는 사람이 유일한 대안이였다고 생각한 듯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평생을 교육자의 길을 걸었다. 박한영은 고등불교강숙에서 사집과·사교과·대교과 과정을 혼자서 모두 가르쳤다. 뿐만 아니라 1913년 『조선불교월보』를 인수하여 『해동불보』로 제호를 바꾸어 편집인 겸 발행인으로 발간하였다. 이처럼 그는 교육자로서 대중들에게 시대의 흐름을 전하는 대중매체의 전달자로서 불교계 개혁을 주도하였다.²⁵⁾

3·1운동이라는 폭풍의 시기가 지나고 1920년 불교계에는 신선한 개혁의 바람이 불었다. 중앙학림의 청년 승려들을 중심으로 조선불교청년

23) 김광식, 앞의 논문. 「만해와 석전 그 접점과 갈림길 그리고 절묘한 이중주」.

24) 『海東佛敎』 제6호, 海東佛報社, 1914, p.90.

25) 임혜봉, 앞의 책, 『문사철의 석학 근대 지성의 멘토 석전 박한영』, pp.82-83.

회가 창립된 것이다. 조선불교청년회의 승려들은 불교계를 제약하던 사찰령 체제를 극복하고 정교분리를 주장하였다. 조선불교청년회는 사찰령 철폐 운동을 진행하기 위해 소장 승려들을 중심으로 조선불교유신회를 발족시켰다. 박한영은 조선불교청년회와 불교유신회에 깊이 관여하였으며 사찰령 철폐 운동에 앞장섰다. 사찰령 체제하에서 본사 주지는 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취임할 수 있었다.²⁶⁾ 본사 주지가 되려면 총독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일단 본사 주지가 되면 그 권한이 막강하여 관권 이외에는 그들을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불교유신회는 이러한 본말사 제도를 철폐하고 통일기관을 설립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당시 불교계 운영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사찰령을 철폐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승려 2,284명의 서명을 받아 총독부에 건백서를 제출하였다.²⁷⁾ 청년 승려들이 주축이 되어 많은 승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이 건백서에 대하여 총독부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불교유신회는 박한영·김경홍 등 7인의 위원을 선정하여 당국에 다시 질의하기로 하였다.²⁸⁾ 청년 승려들의 이러한 운동은 일제 치하에서 불교계의 자주권을 확보하려는 지난한 노력이었지만 총독부의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는 일이었기 때문에 성사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1920년대 초반 청년 승려들의 이러한 통일기관 설립 운동과 자주권 확보를 위한 노력은 1929년 조선불교선교양종 승려대회로 이어졌다. 전국의 승려 107명이 모여서 불교계의 현안 사항들을 토의하고 결정하였다. 토의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종헌제정, 중앙교무원의 현장 제정, 승니법규 제정, 교육에 대한 근본방침, 포교에 대한 근본책, 재정에 대한 근본책, 사회사업에 대한 문제, 기강숙청의 근본책, 불교청년운동 응

26) 「寺刹令施行規則」, 『朝鮮總督府官報』, 제257호, 1911. 7. 8.

27) 「寺刹令 弊端을 말하고」, 『동아일보』, 1922. 4. 21.

28) 「寺刹令 撤廢에 對하여」, 『동아일보』, 1923. 1. 8.

호책, 세계불교운동에 대한 태도 등이었다.²⁹⁾ 이 승려대회는 준비위원들 가운데 많은 승려가 참석하지 못하고, 사회가 바뀌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31본산의 대표가 참석하여 불교계의 총의를 모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승려대회에서 불교계를 대표하는 7명의 교정을 선출하였는데 그들은 김환웅·서해담·방한암·김경운·박한영·이용허·김동선 등이었다. 이처럼 박한영은 당시 불교계의 신망이 높은 상징적인 인물이었다.

2. 독립운동 행적

박한영은 불교계 개혁운동의 선봉에 있었으며, 교계에서는 그에 대한 신뢰도가 컸었다. 그런 만큼 그는 항일운동에도 깊이 관여하였다. 1919년 3·1운동 발발 당시 그는 민족대표 33인의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였다. 그 무렵 그는 서울의 중앙학림 강사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용운이 시간적으로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박한영을 민족대표로 영입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해명이 필요하다.³⁰⁾

박한영은 비록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대열에 합류하지는 못하였지만 곧이어 구성된 한성임시정부에 수립에 참여한 다. 한성임시정부는 처음에는 1919년 4월 2일 인천의 만국공원에서 13도 대표자들이 모여 준비위원회에서 제정한 약법과 임시정부 기구 및 각원 명단, 국민대회 취지서 등을 통과시킨 후에 국민대회를 개최하여 선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 날 만국공원에 모인 사람은 20명 내외 밖에 되지 않았다. 이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주로 종교단체의 대표였다. 인천 회합에서 임시정부 조직과 국민대회 개최 문제가 논의되었고,

29) 김광식, 「조선불교선교양종 승려대회의 개최와 성격」, 『韓國近代佛敎史研究』, 민족사, 1996, p.320.

30) 김광식, 앞의 논문. 「만해와 석전 그 접점과 갈림길 그리고 절묘한 이중주」.

상해 임시정부와 파리강화회의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 결과 상해에 사람을 파견하고 국내에서는 원래 계획대로 정부 조직과 국민대회 개최를 추진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³¹⁾

불교계에서는 박한영과 이종욱이 한성임시정부에 참여하였다.³²⁾ 국민대회 개최일은 4월 23일로 결정되었다. 이날 행사는 세 가지였다. 첫째, 자동차 3대를 빌려 한 사람씩 탄 다음 “국민대회 공화만세”라는 깃발을 달고 동대문·서대문·남대문에서 각각 출발하여 길가마다 인쇄물을 배포함으로써 정오를 기하여 사람들이 종로 보신각 앞에 집결케 한다. 둘째, 노동자 3,000명을 종로 보신각 앞에 배치하여 지휘자 3명에게 ‘국민대회’ 등의 기를 게양하게 하고 정오를 기하여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 운동을 벌인다. 셋째, 종로에서 시위를 개시함과 동시에 ‘13도 대표자’들이 봉춘관에 모여 한성임시정부의 수립을 선포한다. 이들은 3·1 독립선언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한성임시정부의 선포식을 거행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그대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13도 대표들이 봉춘관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로써 한성임시정부 선포식은 무산되었다. 다만 소수의 학생들만이 “국민대회 공화만세”라는 깃발을 들고 시위에 나섰지만 금방 체포되고 말았다. 이런 가운데서 한성임시정부의 성립을 알리는 전단이 배포됨으로써 한성임시정부의 조직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³³⁾ 박한영은 비록 3·1운동에는 직접 참여하지 못하였지만, 그 후속으로 진행된 한성임시정부에 13도 대표로 참여함으로써 불교계 선각자로서의 소임을 다하였다. 한성임시정부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와해되었지만 일제치하에서 민족대표들이 전제 군주제를 벗어나 공화정의 수립을 선포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31) 고정휴, 「한성정부의 조직 주체와 선포경위」, 『이승만과 한국독립운동』,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pp.54-56.

32) 「國民大會趣旨書」, 朝鮮建國四千二百五十二年 四月.

33) 고정휴, 앞의 책, pp.71-72.

박한영의 항일운동은 1919년 3월 전협·최익환 등이 전조선 민족의 대동단결을 표방하고 결성한 조선민족대동단(이하 대동단으로 약칭함)의 참여로 이어진다. 대동단은 3·1운동의 영향으로 결성되었다. 전협은 서울 출신으로 1904년 일진회에 가입한 후 동회의 평의원·총무원과 전북지부회장을 지냈다.³⁴⁾ 이후 그는 1907년부터 1909년까지 부평(富平) 군수를 지내다가 1909년 만주로 망명한다. 1912년 일시 귀국하였던 그는 지난날 토지사취(土地詐取) 사건이 발각되어 3년간 옥고를 치른 뒤 출옥하여 국내 및 중국의 안동·봉천 등을 왕래하면서 세계정세를 관망하였다. 1918년 국내로 들어왔다가 그해 12월 상해로 가서 미국으로 갈 작정이었다. 상해에 체류하던 중 국제정세가 한국의 독립에 유리하게 전개된다고 판단한 그는 귀국하여 국내에서 3·1운동을 맞이하였다.³⁵⁾ 최익환은 충남 홍성 출신으로 1905년 일진회 계열의 광무일어학교(光武日語學校)에 들어가 2년간 수학한 뒤 1907년 가을 종사도량형사무국(從事度量衡事務局) 통역관을 거쳐 탁지부 세무주사와 충남 서천군 재무주사(財務主事)를 지냈다. 1909년 서천군 재무주사로 재직하면서 공금 8천여원을 사취하였다는 죄목으로 징역 7년 형을 받았다. 출옥 후 그는 만주 봉천으로 건너가 상업에 종사하다가 1918년 봄에 귀국하여 전협과 같은 집에 동거하였다.³⁶⁾

이들은 사회 각 층을 황족·縉紳·유교·종교·교육·상공·노동·청년·군인·부인·지역·구역 등의 11개 단으로 나누고 단원 포섭에 착수하였다. 주요 단원을 보면 총재에 김가진, 인사 전협, 문서편집 최익한·정남용, 배달책임 권헌복, 출자자 권태석 등이었다.³⁷⁾ 대동단의

34) 金正柱 編, 『韓國一進會日誌』, 『朝鮮統治史料』 제4권, 慧星文化社, 1986, p.392, p.658.

35) 「全協警察審問調書」, 『韓民族獨立運動史料集』 5, 국사편찬위원회, 1987, pp.147-149.

36) 「崔益煥察審問調書」, 『韓民族獨立運動史料集』 5, 국사편찬위원회, 1987, pp.13-14.

총재인 김가진은 구한말의 대관으로서 주일공사, 농상공부대신, 증추원 의장, 궁내부특진관, 규장각제학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온건 개화론자로서 독립협회 회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대한협회 회장을 지내면서 일진회와 대한협회의 연합을 추진하는 등 친일적 성향을 띠어갔다. 그런 까닭에 그는 망국과 더불어 일제로부터 남작의 작위를 받았다. 1919년 9월 10일 그는 이종욱의 안내로 장남 김의한 등과 함께 상해로 망명하였다. 대동단의 구성을 살펴보면 20대 청년부터 7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연령층이 참여하였으며, 직업별로는 교사, 기독교 전도사, 승려, 유학자, 약종상, 곡물상, 서당 교사, 농업, 광업, 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³⁸⁾

대동단은 1919년 8월 29일 국치일과 10월 31일 소위 천장절에 대규모 만세 시위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대동단은 의친왕을 상해로 망명시켜 대동단의 수령으로 추대하여 거사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 계획은 사전에 일경에게 탐지되어 11월 10일 중국으로 망명길에 올랐던 의친왕이 안동에서 체포된다. 이후 11월 19일 대동단의 주역이던 전협이 피체됨으로써 대동단은 사실상 와해된다.

불교계 인사들로는 박한영이 白初月·李鍾郁·鄭南用·宋世浩 등과 함께 대동단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³⁹⁾ 정남용은 1919년 5월 최익한이 체포된 이후 대동단의 선전 활동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송세호·나창헌 등을 대동단에 가입시켰다. 송세호는 의친왕의 망명 계획에 가담하였다. 백초월은 정남용 등에 의해 불교계 대표로서 대동단의 민족 대표 33인 한 사람으로 추대되었다. 박한영이 대동단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는 현재로서는 자세하게 전하는 자료가 없어 밝히지 못한다.

37) 장석흥, 「朝鮮民族大同團研究」, 『한국독립운동사연구』,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p.259.

38) 장석흥, 앞의 논문.

3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8권, 문화투쟁사, 1972, p.885.

대동단 사건 이후 박한영은 1921년 11월 11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태평양 회의에 제출된 「韓國人民致太平洋會議書」에 서명함으로써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의사를 다시 확인한다. 태평양 회의는 미국·영국·일본·중국 등 9개국이 참여하여 해군 군비 축소 문제와 극동지역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열린 국제회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태평양지역의 극동아시아 문제를 토의하는 태평양 회의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외교능력을 총동원하였다. 태평양회의는 1922년 2월 6일까지 진행되었는데 이승만, 서재필을 대표로 하는 한국대표단은 각국 대표를 접촉하였다. 특히 국무장관 휴즈를 단장으로 하는 미국대표단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각종 진정서를 전달하는 등 회의에 참석·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이 회의는 본래 강대국의 이권 재조정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한국독립문제는 제기조차 되지 못하였다.

Ⅲ. 독립유공자 서훈 문제

박한영은 1919년부터 여러 방면에서 항일운동에 참여하였으며 그 행적으로 보자면 독립유공자로 선정되기에 충분하다. 박한영의 독립운동 공적을 심사한 국가보훈처의 결정은 보류로 판정이 되었다고 한다. 그 까닭은 박한영에게 포상을 하기에는 몇가지 결격 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필자가 박한영의 행적 가운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을 종합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많은 친일파들이 수록되어 있는 1935년에 발간된 『朝鮮功勞者銘鑑』에 박한영이 수록되어있다.⁴⁰⁾

40) 朝鮮功勞者銘鑑刊行會, 『朝鮮功勞者銘鑑』, 1935, 11, p.122.

2. 중앙불전에서는 1937년 9월 6일 애국일 오전 9시 반 교직원 및 학생 일동이 집합하여 국기게양·천황조서봉독·황거요배·시국강연 등의 의식을 거행하고 오후 2시 남산의 조선신궁을 참배하였다.⁴¹⁾

3. 1938년 4월 1일 현재 중앙불전에서 국방헌금 15원과 위문금 26원 그리고 위문품을 담은 위문대 39개를 납부하였다.⁴²⁾

4. 1937년 5월 총독부의 기관지 역할을 하였던 『每日申報』가 제호(題號)를 『每日新報』로 바꾸고 주식회사로 체제를 변경하였을 때 각계 인사들의 축하 글들을 받아 게재하였다. 이때 박한영이 「頌每日新報改題號」라는 제목으로 『매일신보』가 문화창달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는 축시를 기고하였다.⁴³⁾

5. 1938년 7월 10일 중앙불전에서는 근로보국대를 결성하고 박한영은 당연직 대장이 되었다. 동일 우이동 砂防工事場에서 노력 봉사를 하였고 박한영의 강연이 있었다.⁴⁴⁾

위의 사실은 모두 신문이나 잡지 등에 수록되어 문헌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개개의 사실에 대하여 일일이 해명하는 것도 궁색하다. 왜냐하면 보훈 심사위원들은 대부분 이 분야의 전문학자들이기 때문에 위에 열거된 사실의 경중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위의 사실은 대부분이 1937년 7월 중일전쟁 발발 시점 전후이다. 당시는 일제 말기로서 1938년 7월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이하 '정동운동'으로 약칭함)이 시작될 무렵이다. 이 시기에 일제는 침략전쟁에 총력을 쏟아부을 때이며 조선의 민중들을 일제의 통치에 순응하도록 하기 위해 광분하던 때이다. 모든 기관과 학교와 각종 단체 등에 국방헌금이 강요되었으며, 조선청년들에게 지원병

41) 임혜봉, 『친일불교론』(상), 민족사, 1993, pp.202-203.

42) 임혜봉, 위의 책, p.225.

43) 「頌每日新報改題號」, 『每日新報』, 1938. 5. 15.

44) 「佛專勤勞報國隊」, 『매일신보』, 1938. 7. 11.

으로 참전할 것을 권유하던 때였다.⁴⁵⁾

박한영의 행적 가운데 자발적으로 일제의 정책에 참여한 것은 없어 보이며 다만 소극적으로 임했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서훈이 보류된 것은 박한영의 독립운동 사실을 인정하되 다만 위의 사실 가운데 5번째인 중앙불전 교장으로서는 근로보국대장을 지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 식민통치 조직에 가담하여 활동한 기관장에게 포상을 한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공식적인 서면으로 통보되지는 않았지만, 관계자를 면담한 결과 구두로 전하는 서훈 보류의 내막이 그러하다고 한다. 근로보국대는 “일하지 않는 자는 황국신민이 아니다”⁴⁶⁾는 슬로건 아래 일제가 조선인의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창안한 제도이다. 이제는 중일전쟁이 태평양전쟁으로 확대되자 인력 부족과 물자 부족 상황에 직면하였다. 일제는 물질이 있는 자는 물질로, 노동이 있는 자는 노동으로 천황의 숭고한 대동아전쟁에 기여해야 한다고 하였다.⁴⁷⁾

그런데 여기서 간과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그것은 1938년 6월 9일 박한영이 당시 중앙불전 운영 주체였던 조선불교중앙교무원을 찾아가서 교장직 사임을 言明하였다는⁴⁸⁾ 것이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이 사임 의사는 제때 처리가 되지 못하고 그해 11월 21일에야 처리가 된다.⁴⁹⁾ 이 사실은 박한영의 서훈이 보류된 이유를 뒤집을 수 있는 충분한 소명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는 중앙불전 학교장직 사의를 표명한 순간에 그는 더 이상 학교장직을 수행할 의사가 없었던

45) 최유리, 『日帝 末期 植民地 支配政策研究』, 국학자료원, 1997, pp.179-197.

46) 『매일신보』, 1941. 9. 16.

47) 이병래, 「일제하 전시체제기 경성부의 노동력 동원구조」, 『史林』 24, 2005, p.55.

48) 「教界消息」, 『佛敎』 新 제15집, 佛敎社, 1938. 9, 1, p.39.

49) 『석전정호 큰스님 연보·저술·연구자료 총목록』, 백파사상연구소, 2012, p.12, p.16, p.15.

것으로 보아야 한다. 11월 21일에 면직처리가 된 것은 단지 행정 절차상의 문제였을 따름이고, 실질적인 사임 시기는 6월 9일이기 때문이다. 무릇 친일 행적은 최소 범위로 국한시키고, 항일운동은 최대 범위로 확장하여 포상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경성부는 정동운동 단계에서 학생층을 일상 동원의 주 대상으로 삼았다. 학생들에게는 ‘엄격한 규율을 통한 공익적 집단 작업의 훈련’, ‘국가봉사 정신의 실천’, ‘건실한 황국신민의 자질을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각종 근로 작업이 의무화되었다. 경성부에서는 1938년 7월 21일 학생근로보국대가 조직된 이후 1938년 한 해만 부내 학교 학생 6,300여 명이 동원되었다. 조선인은 병역 의무를 갖지 않는 대신 각종 근로 작업에 노동으로 ‘국가의 전쟁 수행’에 기여하면서 ‘황국신민’이 되기 위한 자질을 훈련할 것을 강요받았다. 작업의 내용은 주변 도로 청소, 하수나 하천 준설, 神社나 神祠 내외의 청소 등이었다. 이 중에서 신사의 조영이나 청소는 전쟁수행 이데올로기 교육의 장 그 자체였다.⁵⁰⁾

박한영은 1941년 2월 26일부터 10일간 조선불교선리참구원(선학원)에서 진행된 ‘遺敎法會’에서 송만공·하동산 등과 함께 범망경·『遺敎經』등을 설하였다. 이 법회는 일제의 불교정책과 일본 불교의 침투로 인하여 한국 淸淨僧風의 전통이 희미해지는 것을 방지하여 傳統佛脈을 구현하려는 목적에서 개최되었다고 한다.⁵¹⁾

일제가 패망하고 해방을 맞은 불교계는 교단 집행부의 교체부터 착수하였다. 재경 유지 승려들은 8월 19일 종무총장과 3부장을 퇴임시키고, 8월 21일에는 朝鮮佛敎革新準備委員會를 조직하였다. 조선불교혁신준비위원회는 전국승려대회를 개최하여 향후 불교계의 방향을 정하고자 하였다. 조선불교혁신회의 준비로 1945년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남한의 대표 60여 명이 참석하여 전국승려대회를 개최하였다.⁵²⁾

50) 이병래, 위의 논문, pp.56-57.

51) 김광식, 「일제하 禪學院의 운영과 성격」, 『韓國近代佛敎史研究』, 민족사, 1996, pp.135-136.

이 승려대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교계의 종명인 조선불교조계종을 폐지하였다. 이 명칭이 사찰령 체제하에서 나왔다는 인식 때문에 해방된 시점에서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조선불교’라는 명칭을 쓰기로 하였다. 둘째, 교정기구를 개혁하였다. ‘조선불교조계종총본산태고사법’과 ‘31분말사사법’을 폐지시켰다. 그리고 중앙에는 총무원(집행부)을 설치하고 각 교구에 교무원을 두어 총무원에서 총괄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입법기구로서 교정 심의기관과 사법기구로서 교정 감찰기관을 두고, 교정에 박한영을 추대하였다. 일제 말기에 폐교된 혜화전문학교를 복교시키고, 학장에 허영호를 선임하였다. 새롭게 출범한 총무원은 10월 3일에 박한영 교정의 추대장을 봉정하고, 11월 30일에는 혜화전문학교를 개교하는 등 교단정상화에 주력하였다.⁵³⁾

해방 직후에 개최된 이 승려대회에서 박한영이 교정으로 추대되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박한영을 교정으로 추대한 승려들은 모두 일제강점기를 박한영과 함께 살았던 승려들이다. 그들은 박한영이 일제강점기를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눈으로 보아왔다. 박한영에게 작은 친일의혹이라도 있었다면 전국의 모든 승려들이 공의를 모으는 자리에서 그를 불교계의 상징적인 존재인 교정으로 추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불교계의 고승이 어디 박한영 한 사람 뿐이기에 하겠는가. 하지만 당시 불교계는 박한영의 인품과 덕망·학식 등이 불교계를 대표할 만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초대 교정으로 추대하였다. 민족진영 인사들은 1946년 해방 이후 처음 맞는 3·1절 기념식을 성대하게 거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조직된 기미독립선언기념 전국대회준비위원회가 2월 4일 오후 2시 천도교기념관에서 결성될 예정이었다. 이 전국대회 추진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⁵⁴⁾

52) 김광식, 「8·15해방과 불교계의 동향」, 『韓國 近代佛敎의 現實認識』, 민족사, 1998, p.250.

53) 김광식, 위의 책, p.252.

명예위원장 : 이승만 · 김구

회 장 : 신익희

부 회 장 : 박한영 · 서정희 · 함태영 · 정광조

준비위원장 : 김관식

부위원장 : 김도연

이것은 박한영이 3·1운동과 직결된 한성임시정부의 13도 대표 가운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처럼 박한영은 불교계 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승려였다. 당시 박한영은 불교계의 상징적인 교정이면서 사회 원로로서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빛나는 3·1운동을 기념하는 자리에 상징적인 임원이 되었다는 것은 독립운동사에 있어 박한영의 위상이 결코 적지않다는 것을 뜻한다.

“예외없는 법은 없다”라는 속담이 있다. 모든 법에는 원칙이 있지만, 그 원칙이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이 통용되는 고정불변의 법칙은 아니라는 것이다. 박한영은 불교계 모든 승려들의 총의에 의해서 일제강점기와 해방 직후에 걸쳐 두 번이나 교정에 추대되었다는 것은 타 단체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박한영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당연직으로 된 중앙불전 근로보국대장을 135일간 지낸 사실로 서훈을 보류한다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본다.

IV. 맺음말

박한영은 외세가 밀려드는 한말에 태어나서 암울한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공간까지 살다 간 불교계의 선각자이다. 그는 불교계의 현실개혁과 항일운동 그리고 후학들을 지도하는 교육자로서 일관되게 생활하

54) 「己未獨立運動記念大會」, 『자유신문』, 1946. 2. 1.

였으며 이것은 후일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 1910년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불교 종단이었던 원종의 종정인 이회광의 불교계를 근대화한다는 미명 아래 일본 조동종과 연합을 시도하였다. 이회광의 이러한 망동에 직면한 박한영은 한용운·진진웅·김종래 등 불교계의 의식있는 승려들과 더불어 이 책동을 저지시키함으로써 불교계의 정체성을 수호하였다.

1920년대 일본불교의 영향으로 대처식육의 풍토가 만연되자 박한영은 『계학약전』이라는 저술을 통하여 계육을 수정하는 불교를 비판하고 정통 불교를 수호하고자 하였다. 그는 고등불교강숙·중앙학림·중앙불전 등에서 후학들을 지도하며 인재들을 양성하는데 삶을 바쳤다. 이것은 그의 폭넓은 학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사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인다. 그는 이러한 행적으로 인하여 1929년 조선불교선교양종 승려대회에서 7인의 교정 가운데 한 사람으로 추대될 수 있었다.

박한영은 1919년 3·1운동이 발발하였을 때 비록 민족대표 33인의 대열에 합류하지는 못하였으나 그해 4월에 구성된 한성임시정부에 13도 대표의 한 사람으로 참가하였다. 이것은 박한영이 오늘날 대한민국 정부의 모태가 되는 임시정부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니 그 공적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계층이 참여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려고 하였던 조선민족대동단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도 또한 신명을 내어놓는 과감한 결단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문제를 논의하는 태평양 회의에 조선이 독립되어야 한다는 「한국인민치태평양회의」라는 문서에 서명하고 참여함으로써 불교계의 항일운동의 선봉에 섰다.

그러나 박한영에게도 본인이 원치 않았지만, 타의에 의해 수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력이 있었다. 그것은 일제 말기 중앙불전 교장 시절 국민정신총동원책의 일환으로 조직되었던 근로보국대장을 지냈다는 것이

다. 그 기간은 135일이라는 시간이었지만 그는 평생을 몸담았던 교단을 떠났다. 교단을 떠난 이후에도 일제강점기 항일승려들의 근거지였던 선학원에서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수호하려고 하였다. 1941년 선학원에서 개최한 유교법회에 참여하여 송만공·하동산 등과 함께 한국불교의 정맥을 지키려는 노력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그의 행적은 해방공간에서 더욱 빛을 발하였다. 1945년 9월에 개최된 전국 승려대회에서 박한영은 초대 교정으로 선출되었다. 이것은 그의 학식과 인품과 항일행적을 입증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같은 일제강점기를 함께 살면서 그의 행적을 보아왔던 모든 승려들이 뜻을 모아 불교계의 최고 지도자로 추대하였기 때문이다.

박한영의 항일행적을 보지 않고 중앙불전 교장으로서 당연직 근로보국대장으로 머물렀던 길지 않은 이력 때문에 서훈 보류의 명분이 된다면 이는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처사이다. 현재로서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전 불교계가 동참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사회적 여론으로 환기시키거나 또는 국가보훈처에 탄원서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박한영은 한국 불교계의 초대 교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지는 아직까지 박한영의 행적이 제대로 발굴되어 조명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박한영의 사상과 불교개혁론·계율문제·독립운동·문학사적 가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적어도 박한영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이 몇 편은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대한불교조계종과 박한영 문도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國民大會趣旨書」, 朝鮮建國四千二百五十二年 四月.
- 『每日申報』
- 『新生』, 新生社, 1946.
- 『大韓佛教』
- 『자유신문』
- 『朝鮮總督府官報』, 朝鮮總督府
- 『海東佛教』, 海東佛報社, 1914.
- 朝鮮功勞者銘鑑刊行會, 『朝鮮功勞者銘鑑』, 1935.
- 고영섭, 「映湖堂 朴漢永과 尙賢居士 李能和의 학문적 태도와 연구방법」, 『한국불교학』 제78집, 한국불교학회, 2016.
- 고정휴, 「한성정부의 조직 주체와 선포경위」, 『이승만과 한국독립운동』,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 국사편찬위원회, 『韓民族獨立運動史料集』 5, 1987.
- 김광식, 「조선불교선교양종 승려대회의 개최와 성격」, 『韓國近代佛教史研究』, 민족사, 1996.
- 김광식, 「만해와 석전 그 접점과 갈림길 그리고 절묘한 이중주」, 『유심』 11, 만해사상실천선양회, 2002.
- 김광식, 「일제하 禪學院의 운영과 성격」, 『韓國近代佛教史 研究』, 민족사, 1996.
- _____, 「석전과 한암의 문제의식」, 『한국불교학』 제70집, 한국불교학회, 2014.
- 김상일, 「석전 박한영의 저술 성향과 근대불교학적 의의」, 『불교학보』 제46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07.
- _____, 「근대 지성과 불교잡지 -석전 박한영과 만해 한용운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회』 제52집, 한국어문학회연구학회, 2009.
- _____, 「石顛 朴漢永의 불교적 문학관」, 『불교학보』 제56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0.
- 김상현, 「1910년대 한국불교계의 유신론」, 『불교평론』 4, 2000.
- 金正柱 編, 『韓國一進會日誌』, 『朝鮮統治史料』 제4권, 慧星文化社, 1986.

- 김창숙, 「石顛 朴漢永의 『戒學約註』과 역사적 성격」, 『한국사연구』 107, 1999.
- 김택근, 『천재들의 스승. 석전 박한영』,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
- 노권용, 「박한영의 불교사상과 유신운동」, 『한국근대종교사상사』, 원광대학교, 1984.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8권, 문화투쟁사, 1972.
- 송선개, 「石顛 朴漢永의 佛敎 敎育改革에 관한 研究」, 東國大學敎育大學院, 석사학위논문, 1999.
- 신규탁, 「석전 박한영 강백의 교학 전통」, 『한국불교학』 제70집, 한국불교학회, 2014.
- 신현숙, 「石顛 朴漢永의 佛敎維新運動에 관한 一考察」, 동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84.
- 심삼진, 「石顛 朴漢永의 詩文學」, 『국어국문학논문요지집』, 1987.
- 오경후, 「石顛映湖 大宗師의 항일운동」, 『石顛映湖 大宗師의 生涯와 思想』, 제2차 백파사상연구소 학술세미나 자료집, 2009.
- _____, 「石顛 朴漢永의 佛敎史觀과 그 價値」, 『한국불교학』 제88집, 한국불교학회, 2018.
- 이덕진, 「일제시대 불교계 인물들에 대한 연구 성과와 동향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 불교사상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선문화연구』 창간호, 2006.
- 이병래, 「일제하 전시체제기 경성부의 노동력 동원구조」, 『史林』 4, 2005.
- 임혜봉, 『친일불교론』(상), 민족사, 1993,
- _____, 『문사철의 석학 근대 지성의 멘토 석전 박한영』, 민족사, 2020.
- 장석홍, 「朝鮮民族大同團研究」, 『한국독립운동사연구』,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 최유리, 『日帝 末期 植民地 支配政策研究』, 국학자료원, 1997.
- 한중만, 「박한영의 오행합일」, 『불교와 유교의 현실관』, 원광대학교, 1981
- _____, 「박한영의 유신사상」, 『현대 한국의 불교사상』, 한길사, 1988.
- 효 단, 「근현대 불교인물탐구, ① 박한영」, 『불교평론』 44, 2010.
- _____, 「石顛映湖 大宗師의 戒律思想」, 『石顛映湖 大宗師의 生涯와 思想』, 제2차 백파사상연구소 학술세미나 자료집, 2009.

Abstract

Park Han-Young's Independence Activist Award Issue

Kim, Sun-seok

(Senior Researcher,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Park Han-young is a high priest in the Buddhist world who lived through turbulent times from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through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o the modern society. He devoted himself to the independence movemen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ith a strong anti-Japanese consciousness at a time of hardship in the history of the nation.

Park Han-young's career can be summarized in three aspects: first, the Reform movement through Buddhist group, second, the national salvation movement through education, and third, the anti-Japanese movement through participation in the Hanseong Provisional Government and the Daedongdan activities. It can be said that his Buddhist reform movement was an effort to establish the identity of the Korean Buddhist community.

These efforts appeared in the form of the movement to establish the Imje Order, the movement to abolish temple ordinances, and to educate the public, which were part of the anti-Japanese movement. Park Han-young's Buddhist Restoration Movement was an effort to restore the subjectivity of Korean Buddhist circles due to the religious aggression of the Japanese imperialists, aiming for an anti-feudal and anti-foreign power from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to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Park Han-young's independence movement can be divided into the Hanseong Provisional Government, the activities of the

Daedongdan, and submission of the Korean People's Pacific ocean Peace Conference. All these activities were laborious efforts aimed at constructing an independent and independent modern nation-state.

Park Han-young's disciples asked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to select him as a meritorious person for independence in 2010 to commemorate Park Han-young's deeds. It is said that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de a suspended decision after examining Park Han-young's anti-Japanese movements. It is said that the problem was that Park Han-young served as the head of the Central Buddhist College as the head of the labor patriotism at the time of the National Spiritual Mobilization Movement after the Sino-Japanese War.

This thesis attempts to elucidate these problems, reveal the Buddhist reform movement, education project, and independence movement of Park Han-young, and suggest a new alternative by finding its significance. Furthermore, I hope that this thesis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revitalize the research of Han-Young Park and open a new horizon in the modern and contemporary Buddhist world.

Key words

Park Han-young, Reform movement through Buddhist group, Establish the Imje Order, Movement to abolish temple ordinances, Hanseong Provisional Government, Daedongdan. Central Buddhist College

논문투고일 : '23. 04. 19. 심사완료일 : '23. 05. 24. 게재확정일 : '23. 05. 24.